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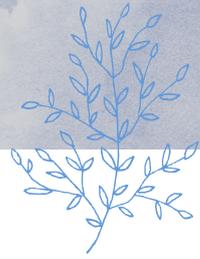
## 아이들과 함께 2010년대 시집 읽기

이 연재는 아주 단순하지만 어려운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읽을 만한 2010년대 이후의 시집은 없을까? 언제까지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이 아이들과 1900년대의 문학을 읽어야 할까? 지금 이 순간의 시를 같이 읽을 수는 없을까?

소설은 이기호의 장편(掌篇) 소설들을 포함하여 김애란의 『바깥은 여름』이나 장강명의 『알바생 자르기』, 최은영의 『내게 무해한 사람』의 단편집부터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 김금희의 『경애의 마음』 등등, 교실에서 함께 읽을 소설이 (시집보다) 많습니다만 시집은 딱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 연재의 문제의식은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2010년 이후에 나온 시집 한 권을 아이들과 함께 읽어 보자. 아이들과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런 시집을 추천하자는 것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좋은 시집이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언제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 나는 시집을 읽는 사람



이정관

전북 전주 효문여자중학교

leepipe@hanmail.net

### 1.

시를 읽지 않는 시대라 하지만 시집은 여전히 출판되고 있다. 누군가는 시를 쓰고, 누군가는 시를 읽는다. 여전히 시는 우리 독서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 축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이들에게 한 권의 시집을 읽히고 싶다. 시선집이 아닌 한 시인의 시집을. 아이들이 한 시인의 정신이 오롯이 담긴 한 권의 시집을 읽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것도 옛날의 김소월, 윤동주, 한용운, 백석 등의 시집이 아닌 현대의 시집을. 불가능할까? 가능할 듯도 하다. 요즘은 청소년 시집도 나오니까, 학생 시모음집도 나오니까. 그런데 이런 청소년을 겨냥한 시집 말고 현대인들 전체를 겨냥한 시집을 읽히고 싶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시집 말고, 오래된 시집 말고, 시야 오래되어도 좋은 시는 언제나 새롭지만, 그래도 현대의 정서를 잘 담고 있는 시집을 읽히고 싶다. 한 권의 시집을 읽고 세상을 조금씩 알아 가는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

### 2.

2010년 이후 나온 시집이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집이며 시선집이 아닌 한 시인의 시집 가운데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시집을 찾기 위해 시집을 읽었다. 시를 공부

하고 가르치는 내게도 시집은 참 많이 어려웠다. 아이들이 시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시인들이 아이들을 멀리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독자가 시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집이 독자를 멀리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는 정말 이리도 어려워야 하는가?’ ‘아이들이 범접할 수 없는 책이 시집인가?’ 이런 생각이 들다가 ‘아이들이 시집을 읽지 않으면 누가 시집을 읽지?’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시집을 누가 이해하지?’ 참 많은 생각이 드는 시집 읽기가 되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아이들도 읽을 수 있는 시집이라 생각되는 시집이 세 권쯤 되었다. 오은의 『나는 이름이 있었다』, 양애경의 『바닥이 나를 받아 주네』, 이문재의 『지금 여기가 맨 앞』. 이 가운데 양애경의 시집은 1997년 초판 발행이어서 빼고 나니 두 권의 시집이 남았다. 이문재의 시집은 2018년 문학동네 출판이고 오은의 시집은 2018년 아침달에서 출판되었다.

두 권의 시집 가운데 내가 아이들에게 읽고 싶은 시집은 오은의 시집이다. 오은의 시 가운데 아이들도 좋아하는 시는 「이력서」이다. 『우리는 분위기를 사랑해』라는 오은의 두 번째 시집에 나오는 이 시는 자기소개서를 써야 하는, 이력서를 써야 하는 우리 아이들이 읽으면서 묘한 웃음을 짓는 시이다. 「이력서」라는 시를 아는 아이들이라면 이 시집을 충분히 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 3.

『나는 이름이 있었다』는 사람을 주제로 하는 시집이다. 32편의 시와 부록의 시 두 편을 포함하면 34편의 시가 실려 있는 시집이다. 「사람」이라는 제목의 시로 시작하여 「사람」이라는 제목의 시로 끝나는 시집. 「사람」이라는 시 말고도 「궁리하는 사람」, 「바람직한 사람」 등 ‘~ 사람’이 들어가는 시가 19편인 등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시집이다.

이야기가 났으니 말이지,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지  
숨기고 싶고  
들길까 봐 전전긍긍하고  
그래도 누군가는 알아줬으면 하는 이야기  
- 「궁리하는 사람」 부분

「궁리하는 사람」의 중간 부분이다. 사람들 모두는 다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어떤 이야기는 숨기고 싶고, 어떤 이야기는 알아줬으면 한다. 시인은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싶어 이 시집을 썼나 보다. 이제 사춘기,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우리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숨기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것이다. 그러니 이 시집에 담겨 있는 수많은 사람 이야기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겠지.

강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네가 사람이야? 고성이 장내를 찌렁찌렁 울렸다.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내가 사람인가? 자문하는 사람도 있었고 나는 사람인데, 확인하는 사람도 있었다. 사람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 「바람직한 사람」 부분

「바람직한 사람」의 첫 부분이다. ‘네가 사람이야?’ 사람들은 사람에게 사람이냐고 묻는다. 묻는 것이 아니라 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 시를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강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시작과 ‘네가 사람이야?’라는 문장을 읽으며 진도체육관을 떠올렸다.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이 이 시를 읽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 참으로 궁금하다.

무인 공장에 내가 있었다. 무인 공장인데 내가 있었다. 무인 공장인데 내가 있는 것이 유일하게 내가 습득한 기술이었다. 어느 날에는 스위치를 켜는 심정으로 불쑥 내 이름을 발음해 보았다. 무인 공장과는 달리, 나는 이름이 있었다. 무인 공장과는 달리, 나는 사람이었다.

- 「무인 공장」 부분

이 정도 시도 아이들은 이해할 것이다. ‘무인 공장에 내가 있었다’는 의미도, ‘무인 공장과는 달리, 나는 사람이었다’는 상징도 아이들은 이해할 것이다. 무인 공장 같은 세상에 자신의 이름이 있다는 의미도 이해할 것이다. 이렇게 여기에 있는 사람에 관한 시를 읽으면서 사람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할 것이다. 그래서 읽히고 싶다.

이 시집의 제목이기도 한 ‘무인 공장과는 달리, 나는 이름이 있었다. 무인 공장과는 달리, 나는 사람이었다.’의 시 구절을 살펴보면, 사람만이 이름이 있었다는 뜻이겠다. 사람과 사람이 아닌 것의 구분은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라는 뜻이다. 사람에게 맞는 이름을 정하는 것, 기의에 맞는 기표를 갖도록 이름을 붙여 주는 것, 그것이 시인의 임무가 아닐까.

#### 4.

이 시집을 읽고 나면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그렇다면 나의 이름은 무엇일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마음에 오래 남은 시들을 골라 다시 읽어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된다. 나는 기다리는 사람이며, 옛날 사람이자, 유예하는 사람이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 읽고 나서 살펴보니, 내가 뽑아 놓은 시들이 모두 내 모습의 일부분이어서 놀랐다.

이 시집을 읽으면서 가장 좋았던 건, 시를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게 한 시. 쉬운 말로 썼지만 쉽게 책장을 넘기지 않게, 한 번 더 읽게 만드는 시. 오은의 『나는 이름이 있었다』는 시집을 읽고 싶은 내 소망을 조금이라도 해결하는 시집이다. 조금 어렵더라도 앞 시의 도움을 받고, 뒤 시의 도움을 받아 오롯이 제힘으로 시집 한 권을 읽게 하고 싶다.

오래되어서 빛나는 시들이 참 많다. 그러나 그 시들만 읽으라고 할 수는 없다. 지금의 좋은 시. 그리하여 백 년 후에도 빛날 수 있는 시들을 읽히고 싶다. 좋은 시 한두 편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 시집의 모든 시를 맛보게 하고 싶다. 더 좋은 시, 덜 좋은 시를 제가 가르고 나누면서 읽는 모습을 보고 싶다.

#### 사족

시인들이여! 제발 아이들도 머리로, 가슴으로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시를 써 주시길! 아이들이, 사람들이 시도 모른다고 욕하지 말고, 사람들이, 아이들이 신나게 읽을 수 있는 시를 써 주시길!



**이정관** — 전주 효문여자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를 좋아하고 시를 통해 세상과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